

# Venture 즐겨찾기

## 코스닥상장기업을 위한 디딤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코스닥상장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문을 연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창립 6주년을 맞이했다. 코스닥상장기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증권유관기관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와 쇄신으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의 활약을 들여다보자.

###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http://www.kosdaqca.or.kr>)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코스닥시장의 개요, 공시제도, 상장관련 유의사항, 상장제도, 요건 및 절차 등 코스닥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주식업무담당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지역별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어 다양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연수, 세미나, 설명회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자세한 일정 확인도 가능하다.



### IR팀 · 연수팀 김중선 팀장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는 코스닥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중시경영 정착의 일환으로 홍보 및 IR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R과 관련한 컨설팅, 기관 및 일반투자자대상 기업설명회, 기자간담회, 애널리스트 간담회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언론매체대상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02-368-4550)

## 코

스닥상장법인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회원사의 권익 옹호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1999년에 창립되었고, 2000년 1월에 재정경제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증권유관기관이다. 현재 협의회의 회원사로는 중소·벤처기업의 전용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840여 개사가 가입되어 있다. 아울러 협의회는 한국의 중소·벤처기업을 대표하는 코스닥기업들이 증권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하여 코스닥시장을 뛰어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스닥기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증권유관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 코스닥기업의 성장 위한 지원사업

협의회가 지난 6년여 동안 수행해 왔던 주요사업은 크게 조사연구사업, 회원사 실무지원사업, 교육·연수사업, 마지막으로 기업홍보·IR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조사연구사업'은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정책건의는 물론 기업 공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정관련건의 등을 통해 회원사들의 권익옹호에 주력하는 사업이다. 또한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고자 코스닥 브랜드가치에 대한 연구, 적대적 M&A 방어방법에 대한 연구, 상장유지비용에 관한 연구 등 심층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코스닥기업 정관기재유형조사와 IR활동 현황조사 등 코스닥기업과 관련된 각종 조사통계사업을 활성화하여 회원사들과 코스닥에 대한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회원사 실무지원사업'으로는 법률·회계·세무분야의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상담역으로 위촉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실무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준다. 아울러 각종 정기간행물 및 <코스닥 상장법인 상담사례집> 등 실무관련서 등을 발간하며, 협의회와 증권시장에 관련된 소식을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또한 코스닥기업의 신인도 향상 및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상장법인을 상징하는 로고를 제정·공표하기도 했다. 코스닥상장법인이 회사의 각종 간행물 및 공고문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코스닥기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교육·연수사업'은 회원사 임직원들이 코스닥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고, 교육대상을 CEO·CFO·담당자로 세분화해 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비롯한 전문연수 6개 과정, 코스닥상장에정법인특별연수 등 6개의 특별연수 과정, 코스닥 CEO포럼 및 최고경영자 조찬세미나, 회원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주주총회 운영 대책 설명회' 등 연간 총 20개 교육·연수과정이 46회 실시되었고, 지난해의 경우 55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각 분야의 최고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POOL을 활용해 강사파견 및 개별회사 위탁연수도 함께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개설한 '코스닥 CEO포럼'은

Techno CEO가 많은 코스닥기업들이 경영상 부딪치게 되는 각종 위험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했으며, 참가한 CEO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올해는 제2기 포럼이 오는 9월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기업홍보·IR지원사업'은 코스닥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중시경영의 정착을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코스닥기업 IR지원은 대규모 기업설명회뿐만 아니라 기자간담회, 애널리스트 및 펀드매니저 간담회, 주요경제지 및 종합일간지의 CEO인터뷰를 적극 추천해 회사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대규모 설명회의 경우 매년 100여 개사의 설명회를 추천하고 있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자간담회와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수시로 추천한다. 특히 2004년 5월에 '코스닥 홍보·IR 담당자 포럼'을 발족해 격월 단위로 포럼을 개최하면서 홍보·IR업무 담당자 상호간의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 코스닥시장 활성화에도 기여

최근 증권시장의 활황과 함께 코스닥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협의회가 추진할 중점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회원사 상호간의 생산적 정보교류를 위한 CEO 네트워크 구축이다. 동종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CEO들이 상호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고민을 함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활성화해 미진한 부문을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성장을 위한 지원시스템의 구축과 활성화이다. 기술개발이나 창의력은 뛰어나지만 관리나 마케팅에 약한 코스닥기업들을 위한 컨설팅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6월에 설립한 '코스닥 M&A센터'를 활성화해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기업인수·합병 등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회원사 및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홍보와 IR지원사업이다. 많은 코스닥 기업은 기업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공정하게 평가받는 것에 취약하다. 따라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국내외 IR지원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을 적극 홍보할 것이다.

넷째,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전문화·다양화할 계획이다. 코스닥기업들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회원사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사업을 전개해 기업의 핵심역량 중의 하나인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시장조사사업의 확대이다. 코스닥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동남아 등 주요 국가의 산업 및 투자환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회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의지뿐만 아니라 증권시장도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협의회가 과거와는 달리 회원사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보다 가까이에서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다.